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는 거리의 시인 '별음자리표'

글 · 김미영 kimmy@hani.co.kr
사진 · 황석선 stonessok@kdemo.or.kr

세월의 흔적을 말하듯 어느새 희끗해진 그의 긴 머리는, 인터뷰 당일에도 언제나처럼 손질하지 않은 듯 헐렁하게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여전했다. 미션·효순이를 추모하는 공간에서도, 용산참사 현장에서도 그는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노래를 불렀을 게다. <총을 내려라>고 평화를 노래하고, <촛불의 외침>을 통해 미션이와 효순이를 추모한다. 늘 한결 같다. 머리스타일뿐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는 그의 목소리까지도. 그것이 별음자리표(홍성배 43세, blog.naver.com/redclef.do)만의 음악세계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그가 거리의 가수가 되었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아이로니컬하다. 다만 그가 인터뷰 당일 입고 온 티셔츠에 새겨진 '해가 구름을 밀고 나온다'는 뜻의 '해밀'처럼, 그의 인생은 역경을 겪으며 한층 성숙해졌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뿐이다.

그가 가수가 된 건 그 연배라면 다 그렇듯, 80년대 사회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건대항쟁이 있었던 86년 대학에 입학한 그에게 '민주화'는 학업보다 훨씬 중요했고,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어린 시절 노래를 좋아하고 불렀고, 학창시절 각종 독창·합창 대회에 단골로 출연하기도 했던 그는 자연스럽게 노래모임에 참여했다. 그리고 학업과는 담을 쌓고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한때는 필명으로 민중가요를 만들기도 했다. 당시 분위기만큼, 과격한 노래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1990~91년 즈음이었어요. 지금 돌이켜 봤을 때, 개인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역사적인 부채입니다. 성찰과 반성을 해오고 있는 중이죠. 다시 음악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있는가, 어디에서 있는가를 더 고민하고 있어요."

비관적인 노래보다는 긍정적인 노래를!

그래서일까. 지금 그는 20년 전처럼 과격하고 선동적인 문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 '기타로도 겨누지 말라'는 철칙은 그의 경험에서 나왔다. 대학 시절 경험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얻은 가르침이다. '모든 생명들이 존엄으로 더불어 손잡고 살기'(<촛불의 외침> 중)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일종의 자기 선언인 셈이다.

"꽃으로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듯 그 연장선상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기타로도 겨누지 말아야 합니다. 기타 치면서, 지나치게 과격하고 혁명적인 노래를 만들고 부를 수 있고 '누구를 죽이자'라는 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데,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 해지자 그거죠."

정치적 목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진보이고 선이며 정의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진보, 선, 정의라고 볼 수 없지 않은가. 말도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나 그가 추구하는 인류 보편타당의 진리인 '평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가 만든 노랫말들은 정제되어 있고, 시처럼 아름답다. 단순히 한반



“마흔이 넘었어요, 그럼 이제 음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 말 없으니, 그냥 계속 하는 거죠.”

도, 한국사회의 문제를 뛰어넘어 세계 인류 보편의 것을 평화라는 관점에서 그려나가고 있다. 그의 노래의 진면목은 2005년 발매된 1집 <앗살람 알라이 쿵>에서 엿볼 수 있다.

서른다섯 늦깎이 데뷔

가수로 활동하기 전, 그는 오랜 기간 수배자 신분이었다. 19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이들 대부분이 그렇듯 91년부터 수배생활을 해왔지만, 그는 기소중지 상태로 고집스럽게 10년을 버텼다. 2001년 힘든 수배생활을 끝내고 보니, 어느덧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될 정도로 훌쩍 커 있었다. 그의 말을 빌자면, 그는 자의반 타의반 ‘국내 망명자’이자 ‘예비군 복무 거부자’다. “홍세화 선생은 20년 넘게 프랑스 망명 생활을 했고, 신영복 선생은 20년 넘게 감옥생활을 했어요. 전 자의반 타의반 10년 가까이 국내 망명을 한 셈이죠. 허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복귀한 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무엇을 하고 살까?’ 고민했다. 다행히 주민등록 말소 문제가 잘 해결됐다. 혼인신고도 하고, 예비군 훈련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됐음은 물론이다.

나이 서른다섯, 다시 노래가 하고 싶어졌다. 결국 노래를 좋아했던 그는 아내를 설득해 ‘마흔이 될 때까지 노래를 해보라’는 허락을 받아냈다. 아내는 여전히 그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다.

“처가 선뜻 동의를 해줬어요. 지금도 차 없이 사는 게 불만이고, 집 평수 작은 게 불만이고, 학원 강사를 하며 생계를 대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불만일 수 있을 텐데, 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그게 행복이라면 행복

이겠죠.”

본격적인 가수 데뷔 준비는 지난 2002년 봄부터 시작했다. 조그만 골방에 인터넷 시스템과 녹음을 할 수 있는 홈 레코딩 시설을 갖췄다. 그러던 와중에 촛불이 타올랐고(미션·효순 추모), 이를 지켜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광장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때 만들어진 노래가 ‘세상의 모든 14살’이라는 부제가 붙은 <촛불의 외침>이었죠. 2004년 5·29 평화축제 헌정곡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미션·효순이 만이 아니라 세계의 미션·효순이를 생각해보자는 뜻이었죠. 전쟁과 기아에 처해있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노래를 만들었는데, 결국 촛불을 제안하고 행동에 옮긴 누리꾼들이 저를(광장으로) 불러낸 것이죠.”

자연스럽게 가수로서의 그의 활동은 이라크 파병 거부 흐름 국면에서 반전과 평화를 노래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이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새만금 사업 반대, 천성산 도롱뇽 살리기, 인천 계산동 골프장 건설 반대 등에 이어 최근까지 기룡전자, 용산참사 등의 현장으로 이어졌다. 그가 노래하는 곳은 평화, 환경, 생태, 노동, 빈민 등 사회의 부조리와 약자들이 있는 곳이다. 그 사이 어느덧 ‘노래 부르는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흔을 훌쩍 넘겼다.

“마흔이 넘었어요, 그럼 이제 음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 말 없으니, 그냥 계속 하는 거죠.”

내 노래와 삶이 일치했으면 하는 바람

사람들은 그의 8년 남짓한 활동을 지켜보며 ‘반전평화 가수’라는 새로운 닉네임을 지어줬다. 하지만 그는 반전평화가수, 노동가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저 ‘들려주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부를 뿐’이다. 가능하면 만들어 부르는 노래와 그의 삶이 일치했으면 하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 별음자리표라는 예명은 오선지에 높은음자리표



사진제공 별음자리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그가 거리의 가수가 되었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컬하다. 다만 그가 인터뷰 당일 입고 온 티셔츠에 새겨진 '해가 구름을 밀고 나온다'는 뜻의 '해밀' 처럼, 그의 인생은 역경을 겪으며 한층 성숙해졌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뿐이다.

대신 별을 그려 넣는 것을 본 한 후배가 “별음자리표네?”라고 말한 것에서 비롯됐다. 별은 꿈이기도 하고, 혁명이기도 하다. 그가 노래하고픈 테마와 같아 자연스럽게 ‘별음자리표’라는 예명을 쓰고 있다.

“제가 꿈과 혁명을 노래하는 가수잖아요.”

넉넉하지 않은 지금의 삶 행복할까? 행복한단다.

“만족 같은 것을 안 하고 살아요. 행복이 있을까, 만족이 있을까 의심하는 편이죠. 오히려 전 가난하고 결핍해서 학문도 나오고 예술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인 것이지만, 노래를 부르는 저로서는 의도적인 결핍, 자발적인 결핍이 좋다고 보고 있어요. 고맙죠. 광장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귀통이에 살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길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요.”(웃음)

그의 1집 음반 <앗살람 알라이 쿼>은 2005년에 나왔지만, 4년째 2집 음반은 베일에 가려 있다. 지금까지 발표한 노래보다 10배나 많은 곡을 만들긴 했지만, 아직까지 음반 출시 계획은 없다고 그는 말했다.

“발표하지 못한 곡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유명해진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더 윤택해지지 않으니까요. 윤택해진다고 해서 내가 추구하는 평화에 더 가깝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명망을 얻고 난 뒤 내가 추구하는 삶을 더 격렬하게 산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허허.”

그렇지만, 그의 노래는 앞으로도 길거리에서, 길동무의 노래처럼 그렇게 울려 퍼질 것이다. *김미영*

글 김미영 | 한겨레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른살 직장인, 책 읽기를 배우다(공저)』란 글쓰기 책을 펴 냈다.